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1)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⑥

⑦ 非博覽 無以據
비박람 무이거
高僧傳云 非博覽無所據
고승전운 비박람무소거
當知今古之興亡 須識昔之義
당지금고지흥망 수식화법지명의
游三藏之教海 玩六經之詞林
유삼장지교해 완육경지사림
言不妄談 語有典據 故 智德安
인불망답 어유전거 고 습착치 찬도안할
理 猶如表 多所涉 內外群書 略皆通
리회간총 다소박습 내외군서 락개편도
除 萬難 悉亦能通 佛經妙義 故 所著刀
음양산수 실역능통 불경묘의 고소유인

⑦ 널리 살펴보지 않으면 근거할 수 없다.
고승전에 이르기를 널리 보지 않으면 말이 근거할 바가 없다하니
마땅히 고금의 흥망을 알아야 하고 모를지기 화법(중국·인도)의 말·뜻을 알아야 한다.
경·률·론 삼장의 바다에 놓고 육경(시·서·예·악·역·춘추)의 술을 즐겨라

진종황제(중국 송나라)가 이시독(시독은 왕에게 강론하는 벼슬)을 불러 한 잔할 새
중용(시독의 이름)이 일어나 고사하며 어뢰기를 관가께서는 큰 그릇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어인 까닭에 천자를 가리켜 관가라 하느냐 물은 즉
대답하기를 제가 장제(중국 위나라 사람)의 만기문을 살펴보니
삼황은 천하를 관으로 삼고 오제는 천하를 집으로 삼는다 했으니
삼황과 오제의 덕을 결합하였을 새 고로 관가라 한 것입니다라 하였다.
임금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임금답고 신하다운 군신은 천년에 한번 만날까 한다더니
이는 학문이 몸에 가득함 때문이라 옛사람의 말을 많이 아는 게 허물될 것은 없노라 하였다.

⑧ 不歷事 無以識
불력사 무이식
子 曰 吾嘗與人 經事久矣
자 왈오비성인 경사구의

말에는 거짓이 없고 전거가 있어야 하니 서적두루 읽으며 생각 간결히 다스려야

말에는 거짓이 없고 전거가 있어야 한다. 고로 습착치가 도안선사를 찬탄하여 이르되
생각하는 바 마음을 간결하고 바르게 다스리며 널리 읽은 바가 많아 내외의 여러 서적을 두루 보고
음양산수(천문·역서·지리 등 자연이치)에 다 능통하며 불경의 심심미묘한 뜻에 오래전부터 자유자재하다 하였다.

⑧ 入太廟 每事問者 敬戒無虞 罔失法道
박입태묘 매사문자 경계무우 망실법도
禮記 禮運 篇 孔子曰 入太廟 每事問 禮記 禮運 篇 孔子曰 入太廟 每事問
나한수성 적업부지 방삭수현 검회망변
多見而識知 未見矣矣矣
다견이식지 미견의매의

⑧ 일을 겪지 아니하면 아는게 없다.
공자이르되 내가 성인은 아니나 경험 이 오래이다 하며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물은 것은 걱정한 게 없음을 경계하여 법도를 잃지 아니하려 한 것이다 하였다.
나한이 비록 성인이나 붉은 소금(남극의 우물에서 난다는 소금)을 알지 못하고 방삭(동방삭)이 비록 현인이나 이 세상이 무너지는 때(검회는 그렇게 타고 남은재)를 가리지 못한다.
많이 보아야 알고 보지 못하면 어둡다.

眞宗皇帝 詔李師德
진종황제 소이시독을
仲容 趙鼎 蘇頌 官家 徹巨器
중용 기고사알고관가 칠거기
上 問何故 謂天子爲官家
상 문하고 위천자위관가
對曰 臣 嘗記 聖朝 萬機 論
대왈 신 상기장제만기론
言 三皇 官天下 五帝 家天下
언삼황 官天下 五帝 家天下
인삼황 관천하 오제 가천하
兼三五之德 故曰官家
겸삼오지덕 고왈관가
上 善曰 眞宗 所建 天載一運
상 선왈진소위관신 천재일우
此 有學問 識身 多識前言 無所深矣
차 유학문장신 다식전언 무소수의

29호 치문경훈 연재번호 <12>가 중복되었기에 36호에서 치문경훈 <20>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여름 특집

해외 고승 지상법석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턱막한 스님 <베트남 선사>

스님은 1926년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태어나 어려서 출가했다. 조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사회봉사를 위한 청년학교와 반한 불교대학, 집현증을 참살하여 평화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1967년 마틴 루터킹에 의해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천거되기도 했으나 평화를 위한 굽히지 않는 의지와 솔직한 표현으로 고국에 되돌아 가는 것이 금지됐다. 스님은 프랑스에 망명, 그곳에서 난민을 위한 활동과 명상을 위한 작은 공동체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Being Peace> 등 60여권이 있다.

30년전 내가 아직 후 후 과과다 (Tu Hieu Pagoda)의 사마승이였을 때, 설거지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승려들이 사찰로 돌아오는 안거기간 동안 두 명의 사미승이, 때로는 100명이 훨씬 넘는 대중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곳 씻는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비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잣가루, 버갓질, 야자 껍질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물이 얼음같이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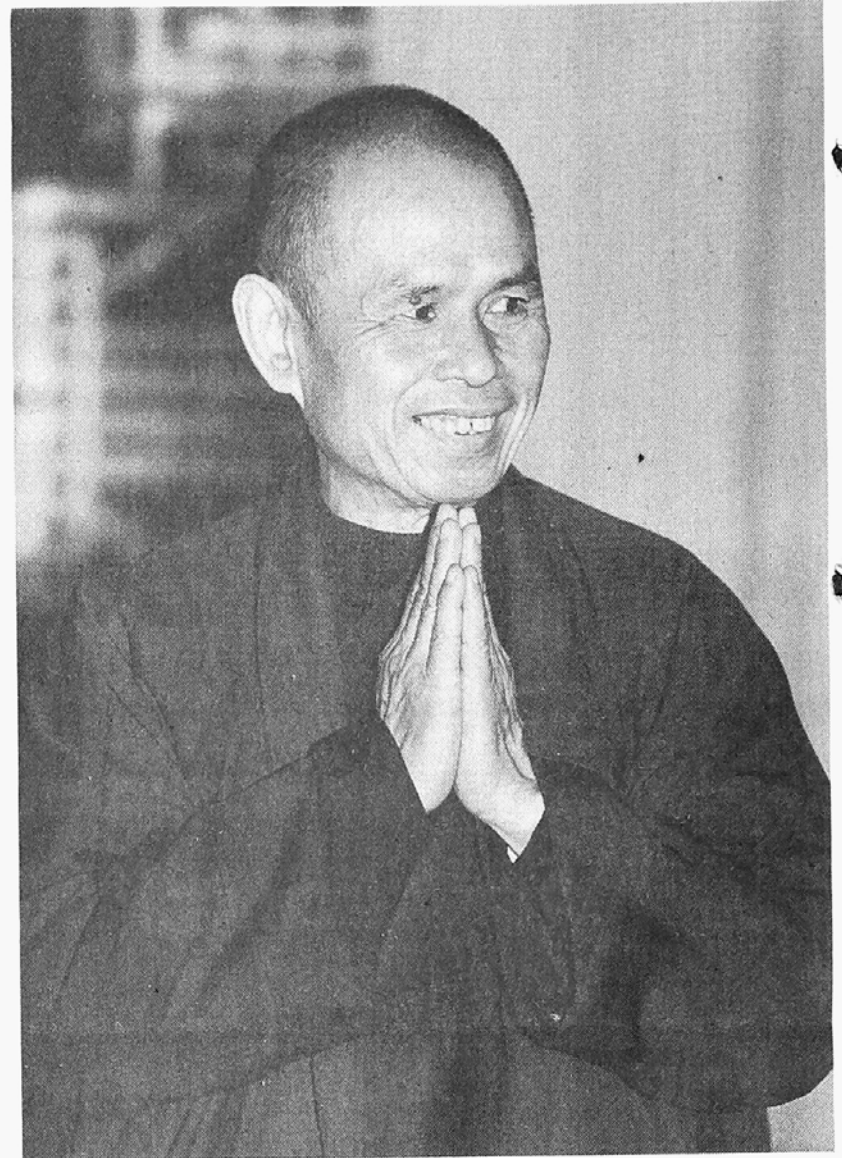
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사소한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경이로운 현실입니다. 나의 호흡을 따르면서 내가 이곳에 있음을 의식하고, 내 생각과 행위를 의식하면서 완전하게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과도에 이리 저리 휘둘러 다니는 병과 같

어떤 일에 몰두 한다는 자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운 겨울에 산더미같이 높이 쌓여 있는 그릇을 씻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릇을 문질러 씻기 전에 큰 솥에 물을 던져 데워야 했습니다. 오늘날 부엌에는 물비누도 있고, 특별한 수세미도 있으며, 게다가 온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를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설거지를 빨리 끝낼 수 있으며, 그런 뒤 앉아서 한 잔의 차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빨래를 하지만 세탁기가 등장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 씻는 기계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떠올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 짐 포리스트(Jim Forest)라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8년 전 내가 처음으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가톨릭 평화회(Catholic Peace Fellowship)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집이 찾아 왔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여러 사람들과 앉아서 차를 마시기 전에 항상 설거지부터 먼저 합니다. 어느날 저녁 짐은 자기가 설거지를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물론이지요. 하지만 설거지를 하려면 설거지 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짐은 말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당신은 내가 설거지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거지 하는 방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



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릇을 씻는 동안 우리는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동안, 기적과도 같은 삶을 완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설거지를 할 수 없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잔의 차도 역시 마실 수 없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 손안에 쥐고 있는 찻잔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떠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2천만에 읽을 깨달음을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	

성야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각들

내가 도를 지켜 본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가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 리즈니쉬의 황광우 이감독 옮긴 신국문 전2권 각권 7,500원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